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圈點) 체계에 대하여

섭보매* | 원광대

<목 차>

1. 서론
2.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제작법
 - 2.1.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圈點) 유형과 기능
 - 2.2.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제작법
 - 2.3.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 제작법에 대한 추정
3. 사성 권점의 판별 근거와 표시 방식
 - 3.1.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의미의 판별 근거
 - 3.2. 『사림광기』와 일치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성 권점의 특징
4. 결론

1. 서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작은 권점에도 편찬자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원전의 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그 자료의 인식은 더욱 분명하게 된다(안병희 1997:201).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실점 ‘●’와 공권 ‘◦’ 등의 권점을 대상으로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제작법,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근거, 사성 권점의 표시 방식과 『사림광기』(事林廣記) ‘字有四聲’의 연관성 등을 고찰해 보고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1) 작은 동그라미 ‘◦’을 한자어로는 ‘권점’, 순수 한국어로는 ‘돌림’이라 부른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 부호와 한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권점’이라 부르고자 한다.

자 한다.

그동안 구두점과 사성 권점에 대한 논의는 주로 권점의 위치와 기능, 동형이의 한자의 자음과 자의를 판별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특히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근거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낙장 보사 부분을 교감하려면 무엇보다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본뜻과 기타 뜻을 구별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성 권점을 찍는 여부를 판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사성 권점의 표시 방식과 『사림광기』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제작법을 살펴볼 것이다.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형태 변천, 사성 권점이 생기는 원인과 표시되는 원칙, 권점의 제작법과 교정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구두점과 사성 권점은 전문적인 권점 도구로 찍고, 권점까지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송원 시기 권점을 찍는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권점과 주석을 포함하여 판각하여 책을 펴내는 것은 송원 시기에 흥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본뜻)과 차음(기타 뜻)을 판별하는 근거를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사성 권점의 표시 방식이 『사림광기』(事林廣記) ‘字有四聲’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30개의 동형이의 한자가 나타났는데 한자의 본음과 본뜻이 아닌 경우 사성 권점을 표시하였다. 훈민정음 30자 중에서 『육서략』과 『고금운회거요』와 일치한 글자가 절반을 넘었다.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데 이들을 참고한 것임을 설명할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사성 권점은 한자와 바짝 붙어서 찍은 방식이 주지한 사실이다. 한자와 살짝 겹쳐 찍는 것도 있지만 이는 ‘반권’(半圈)이라는 사성 표시 방법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훈민정음의 이런 사성 표시 방법은 『성리대전』의 체재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사림광기』의 ‘字有四聲’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훈민정

음』 해례본에서의 사성 권점을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2.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제작법

2.1.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圈點) 유형과 기능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공권 부호 ‘ㅇ’과 실점 부호 ‘●’로 구두와 평·성·거·입 사성을 표시하였다. 공권 ‘ㅇ’은 구두와 한자의 사성을 나타내는데 쓰였고, 실점 ‘●’는 한글의 사성을 나타내는데 쓰였다. 그 외에 후음 ‘ㅇ, ㅁ, ㅎ, ㅎ’과 아음 ‘ㅇ’의 자형을 구성하는 ‘ㅇ’ 요소는 일종의 공권 부호로, 중성자의 자형을 구성하는 ‘●’ 요소는 일종의 실점 부호로 볼 수 있다. 해례본에서 공권 ‘ㅇ’과 실점 ‘●’의 기능과 위치가 다르나 권점의 역사와 제작 방법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부호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구점은 오른쪽 아래 글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 찍었고, 두점은 글자 가운데 조금 아래에 찍었다(정연찬 1970:283, 박지홍 1979:630-631, 안병희 1986과 1997, 유태일 1989:98-102, 이상규 2008, 김슬옹 2015:56 등). 구점은 오른쪽 아래 찍는다 하여 ‘우하변 권점’이나 ‘우권점’, 두점은 글자의 가운데 찍는다 하여 ‘중권점’이라 부르기도 한다(백두현 2010:13, 김슬옹, 2015:56). 구점과 두점이 합하여 구두점, 구두(句讀), 구도(句度), 구투(句投), 구단(句斷), 구두(句逗)라고도 한다. ‘구두’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동한나라 하휴(何休)의 『공양전해고자서』(公羊傳解詁自序)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당나라 때부터 구점과 두점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楊亦鳴 1998:190)²⁾.

원나라 황공소(黃公紹)의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에서는 ‘구’(句)는

2) 楊亦鳴, 『文言文學習辭典』, 黃山書社, 1998, 190쪽. “句讀也叫‘句逗’。或寫作‘句投’、‘句度’。指閱讀文章時音節停頓的地方。‘句讀’一詞最早見於東漢何休『公羊傳解詁自序』:‘援引他經, 失其句讀。’最初句與讀不分, 唐以後逐漸區別開來, 文辭語意已盡處爲句, 語意未盡而須停頓處爲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그 의미가 끊어지는 곳, 그 옆에 찍는 것이고, ‘두’ (讀)는 어의(語義)가 끝나지 않았지만 호흡에 따라 영송(詠誦)을 편하게 하는 휴지처(休止處)의 중간쯤에 찍는 것이라고 하였다.³⁾ 『고금운회거요』에 구두점에 대한 설명이 있음을 국어학계에 처음 제시한 것은 유탁일(柳鐸一, 1977:35)이다.⁴⁾ 그러나 『고금운회거요』에서의 구두점에 대한 기술은 당나라 승인 湛然(711-782)의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管錫華 1995:22)⁵⁾. 『법화문구기』에서 구두점의 개념을 처음 정의한 뒤 송나라 모황(毛晃)의 『증수호주운략』(增修互註韻略), 원나라 황공소의 『고금운회거요』, 명나라 원자양(袁子讓)의 『자학원원』(字學元元)⁶⁾, 몽치릉(凌稚隆)의 『한서평림』(漢書評林) 등에서는 모두 이를 따라서 구두점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구두점은 중국 송·원·명 시기 보편적인 문장 부호로 사용되었다.

해례본에서 구두와 사성을 표시하는 공권 ‘ㅇ’의 모양이 동일하나 그 기능은 전혀 다르다. 공권 ‘ㅇ’는 한자의 네 귀퉁이에, 그 찍는 위치에 따라 한자의 평·상·거·입 사성을 표시한다. 왼쪽 아래에 찍는 것은 평성, 왼쪽 위는 상성, 오른쪽 위는 거성, 오른쪽 아래는 입성이다(정연찬 1970, 서재극 1994, 안병희 1986, 안병희 1997, 유탁일 1989, 이상규 2008, 이상규 2009, 김슬옹 2015 등). 사성 권점의 용어는 통일된 명칭이 없어서 다소 혼란스럽다. 한자의 사성 권점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점(點), 발(發), 점발(點發), 점서(點書)⁷⁾, 권(圈), 권점(圈點), 주발(朱發), 권발(圈發), 권법(圈法), 권식(圈

3) 송나라 황공소(黃公紹), 『古今韻會舉要』, 『한국학고사전시리즈 13』, 아세아문화사, 1297/1975, 404쪽. ‘讀’자 조목. “凡經書成文語絕處, 謂之句. 語未絕而點分之, 以便誦詠, 謂之讀. 今秘書省校書式, 凡句絕則點於字之旁, 讀分則點於字之中間.”

4) 박지홍,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제164호, 한글학회, 1979, 630쪽.

5)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1995년 제5집, 1995, 22쪽. “天臺沙門湛然『法華文句記』卷一: ‘凡經文語絕處謂之句, 語未絕而點之以便誦詠謂之讀.’這是見到的最早的從語氣語義角度給‘句’、‘讀’下的定義。”

6)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1995년 제5집, 1995, 24-25쪽. “宋毛晃『增修互註韻略·候韻』‘讀’下: ‘讀, 句讀……凡句絕則點於字之旁, 讀分則點於字之中間是也.’明袁子讓『字學元元』卷五: ‘句讀, 讀音豆. 語絕白句, 語未絕點字之中曰讀.’以這一時期的寫刻本印證, 知其所發明指的是一種號表示‘句’與‘讀’, 則以字旁、字中的不同位置以示區別。”

識), 권독(圈讀), 권성(圈聲), 권파(圈破), 독파(讀破), 파독(破讀), 흑발(或發), 이독(異讀), 동자(動字), 발권(發圈), 발권법(發圈法), 사성권발법(四聲圈發法), 사성권점(四聲圈點), 사각표사성(四角標四聲) 등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권발, 사성 권표, 권표, 사성 권점, 파음자의 권성, 권성, 돌림, 동그라미, 고릿점, 월점, 사성표시 구두점, 침운 권점, 흰 권점 등이라고 한다. 한글의 사성 권점은 좌점(左點), 방점(傍點), 사성점(四聲點), 성점(聲點) 등이라고 한다.⁸⁾ 한국의 사성체계는 중국 운학의 음운관(音韻觀)과 중국어 성조의 영향으로 생성된 것이며 방점은 사성체계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위적으로 고안된 보조기호일 뿐이었다(김영국 1997:106).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자의) 사성 권점과 한글의 사성 방점이라 부르고자 한다.

2.2.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제작법

2.2.1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적 변천 과정

- 7) 중국에서 한자의 사성 권점을 ‘점서’(點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점서’는 보다 광의적인 개념이다. 구두점, 사성 권점이 모두 ‘점서’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당나라 李匡文의 『資暇集』 “學識何如觀點書”에서 ‘稷下有諺曰 學識何如觀點書 書之難 不唯旬度義理 兼在知字之正音借音 若某字, 以朱發平聲 卽爲其字 發上聲變爲某字 去入又改爲某字 轉平上去入易耳 知合發不發爲難 不可盡條舉之’라고 한다. 이 내용을 둘러싸고 20세기 말까지 중국학자가 ‘점서’가 구두점만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呂友仁이 “學識何如觀點書辨”(1989)에서는 점서가 사성을 나타내는 관점을 내세워 呂叔湘의 ‘整理古籍的第一關’(1983)등의 ‘점서’ 관점을 반박했다. 1992년 任遠의 “點書辨”에서 呂友仁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점서는 성조, 구두점, 의리(義理) 세 가지를 지칭한 것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잠잠했다가 2011년 李惠玲이 “學識何如觀點書續辨”의 논문에서 점서의 지칭 내용이 두 가지라고 하였다. 하나는 권점으로 구두를 표시하고, 또 다른 하나는 권점으로 동형이의 한자의 성조를 표시한다. 문맥의 뜻[義理]은 구두의 범위에 소속된다고 여겼다.
- 8) 중국에서 사성 권점의 용어에 대해서는 張群顯(2008: 129)에서 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 한국에서 한자의 사성 권점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상규(2008: 147, 2009: 160)에서, 한글의 사성 권점의 용어에 대해서는 남광우(1953: 4)에서 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구두점과 사성 권점은 정연한 체계를 이루었다. 구두점과 사성 권점은 문장 부호의 한 종류로 한자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한문의 문장 부호와 관련된 이론의 발달사, 한자의 사성 권점이 생기는 원인과 역사적인 형태 변천, 구두점과 사성 권점을 찍는 권점 도구의 제작법 등을 찾아봄으로써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구두점과 사성 권점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 문장 부호의 발전 단계는 선진(先秦)시대의 맹아기, 양한(兩漢) 시대의 발전기, 위진(魏晉)·오대(五代)의 보수기, 송·원·명 시기의 성숙기, 청나라의 확장기 등으로 오대분된다. 갑골문에서 일찍 사용하기 시작한 문장 부호는 약 8백 여 년이 지나서 한나라에 들어선 후 문장 부호의 이론이 생기게 되었다(管錫華 1997:58-63)⁹⁾.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두’라는 개념은 한나라에서 ‘구두’(句讀)라는 단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당나라 때부터는 구두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경전을 읽으려면 먼저 구두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한유(韓愈)는 구두를 모르면 곤혹이 풀리지 못하기 마련이라고 할 정도였다(管錫華 1995:22-23)¹⁰⁾. 지금까지 전해오는 자료 가운데 공권으로 구두점과 사성을 나타내고, 구점은 글자의 오른 쪽에, 두점은 글자의 중간에 찍는데, 그것이 반영된 첫 문헌은 송나라 『춘추공양해고·희공삼년』(春秋公羊解詁·僖公三年, 余仁仲 판각본)이었다(管錫華 1997:61)¹¹⁾.

사성 권점과 관련하여 한자의 네 귀퉁이에 권점을 찍기 시작한 것은 평·상·거·입 사성이 생긴 제량(齊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李愛國

9)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1995년 제5집, 1995, 22쪽. “從殷商甲骨文算起, 漢語標點符號在使用了八百年之後, 到了漢代產生了標點符號理論。”

10)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1995년 제5집, 1995, 22-23쪽. “唐人對標點符號的幾點認識, 也是前此所未見的。第一, 讀書須從句讀始。韓愈 『師說』謂: ‘句讀之不知, 惑之不解, 或師焉, 或否焉, 小學而大遺, 吾未見其明也。’”

11)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發展史論綱』, 『古漢語研究』 1997년 제2집, 1997, 61쪽. “句號一分爲三, 小圈句號主要用於句讀, 如宋余仁仲刊 『春秋公羊解詁 僖公三年』 ‘齊侯宋公黃人會於陽谷。’, 這是句號以置於字右下角與字下之中分別表示‘句’與‘讀’的最早用例。”

2008:133)¹²⁾. 사성 권점이 생긴 것은 한자의 표음 기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한자는 표의문자다. 어휘의 의미 확대에 따라 음에 비해 글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으면 비슷한 발음을 가진 글자를 빌려서 사용하였다(周采泉 1986:72)¹³⁾. 한자에는 가차(假借)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많고, 동일한 글자가 하나 이상의 자음(字音)이나 의미를 가지는 수가 많다. ‘麗’자는 사성 권점[圈發]의 좋은 예다. ‘고려’(高麗)의 ‘麗’자는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진 ‘麗’(거성)자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별의 의미를 뜻하는 ‘離’자와 같은 평성이다.¹⁴⁾ 『용비어천가』에도 ‘麗’자를 평성 권점으로 표시하였다.¹⁵⁾ 시대에 따라 한자의 자음이 끊임없이 변하므로 한자의 자음과 자의를 잘 변별하기 위하여 해당 글자의 네 귀퉁이에 사성 권점을 찍는 방법이 생겨났다. 이는 사성 권점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다.

당나라 장수절(張守節)의 『사기정의』(史記正義, 약 736년)에서는 한자의 본음(혹은 정음)을 가진 정자(正字)라면 사성 권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사성 권점을 동형이의 한자에 찍는 원칙이다(管錫華 1995:23).¹⁶⁾ 그러나 당나라 때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송나라

-
- 12) 李愛國, 『圈發源流考』, 『湖北社會科學』 2008년 제9집, 2008, 133쪽. “用圈點這一方式來標示聲調起於何時呢? 清末謬楷 『經余隨筆』卷一雲: ‘四聲起於齊梁, 近世塾師以朱圈記字之四角以別四聲, 亦起於齊梁.’ 其說可信.”
- 13) 周采泉, 『漫談異讀』, 『文史博議』, 廣東人民 出版社, 1986, 72쪽. “我國文字往往一字多義, 而多義之字又往往有多種音讀, 以表詞性, 這就是所謂異讀. 漢代經師鄭玄對於異讀的產生原因是這樣說的: ‘其始書之也, 倉卒無字, 或以音類比方假借爲之, 趣(促)於近之而已. 受之者非一邦之人, 其鄉同言異字, 字同音異, 於茲遂生輕重謬誤矣.’”
- 14) 조선 한치윤(韓致胤, 1765-1814). 『해동역사』(海東譯史), 한국고전종합DB, 제12권, “按高麗之麗 當音離 張位發音錄云 高麗之麗 圈發 平聲是也 或以爲取義於山高水麗者 非也 蓋高麗起於高句驪舊地 故稱高麗也 王氏之先”.
- 15) 서재극, 『『훈민정음』의 한자 사성 권표』, 외골 권재선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우리말의 연구』, 우골담, 1994, 39쪽.
- 16)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1995년 제05집, 1995, 23쪽. “張守節 『史記正義發字例對運用標點符號點發字音的方式做了論述, 曰: ‘古書字少, 假借蓋多. 字或數音, 觀義點發, 皆依平上去入. 若發平聲, 每從寅起. 又一字三四音者, 同聲異喚, 一處共發, 恐難辯別. 故略舉四十二字, 如字初音者皆爲正字, 不須點發.’ 齊梁沈約等人發明了漢字的平上去入四聲, 是漢字

에 들어선 후 본음과 차음(借音)을 모두 표시하게 되었다. 원나라 때는 상황이 또 달라졌다. 유감(劉鑑)의 『경사동정자음』(經史動靜字音)에서는 움직이는 차음에는 주홍필로 권점을 표시하고, 멈추는 본음에는 권점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楊劍橋 2003:247).¹⁷⁾ 이처럼 동형이의 한자의 사성 권점은 시대 변천에 따라 찍기도 하였고 생략하기도 하였다. 고대에는 구두점과 사성 권점 등 문장 부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동형이의 한자의 음을 잘못 읽는 사람은 ‘별자선생’(別字先生)이라고 희롱하기도 하였다(周采泉 1986:72).¹⁸⁾

주목할 만한 것은 사성 권점의 역사적인 형태 변천이다. 사성 권점의 원시적인 용어가 ‘점발’(點發)인데¹⁹⁾ 한자 사성 권점의 최초 모습은 실점이었다. 청나라 『십가재양신록』(十駕齋養新錄)에 의하면 당나라 초기에 실점으로 사성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미 흥행하였고, 그 후 송나라 때부터는 편의상 실점 대신 공권으로 사성을 찍는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管錫華 2002:320-321)²⁰⁾. 송원 시기에 표기 부호의 종류와 내용이 비약적으로 발전

註音趨於準確。爲更好地閱讀理解古代典籍，因而產生了表達四聲的方法點發。『發音例』，說明了點發的原因是由於‘古樹字少，假借蓋多，以致‘字或數音’；點發的內容，對象是‘觀發’依平上去入‘點發’數音之字’；點發的具體方式是用‘點’置於字的四角，‘若發平聲，每從寅起’；點發的原則是‘字初音者皆爲正字，不須點發’。”

- 17)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復旦大學 출판사, 2003, 247쪽. “【發圈】…唐人多用點發, 且字的本音不用點發, 宋人始用圈發, 且字的本音、借音都用圈發…【靜字】(1) 訓詁學術語。與“動字”相對。指保持本來讀音的字, 不必發圈的字。元代劉鑑 『經史動靜字音』: ‘凡字之動者, 在諸經史當以朱筆圈之, 靜者不當圈也’。”
- 18) 周采泉, 『漫談‘異讀’』, 『文史博議』, 廣東人民 출판사, 1986, 72쪽. “過去在語文教學上對古書音讀的要求是相當嚴格的。應異讀的字如果仍念作“如字”的, 就會被稱爲‘別字先生’。”
- 19) 張群顯, 『四角標四聲韻沿革及稱謂』, 『晉方言研究 第三屆晉方言 國際學術研討會 論文集』, 希望 출판사, 2008, 130쪽. “『匡謬正俗卷六·副』的‘以朱點發’, 未能確定是‘以朱/點發’還是‘以/朱點發’; 但無論如何, 點發無疑是四角標四聲最原始的叫法。”
- 20) 管錫華, 『中國古代標點符號發展史』, 巴蜀書社, 2002, 320-321쪽. “錢大昕(1728-1804). 『十駕齋養新錄』 권5. ‘四聲圈點’. “蓋自齊梁人分別四聲而讀經史者因有點發之例觀守節所言 知唐初已盛行之矣 宋以來 改點爲圈 如相臺嶽氏刊五

하고, 인쇄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동적인 표기 방식이 더 이상 현실 수료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주사점(朱砂點)이 다른 실점과 혼동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공권이 실점을 대체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적색이 여전히 눈에 잘 띄어서 적색의 공권으로 사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張群顯 2008:131).²¹⁾ 비록 송나라 때 공권으로 사성을 표시하는 방식이 대세였지만 실점으로 사성을 표시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李愛國 2008:134). 그리고 명나라에 들어선 후 온전한 하나의 공권이 절반의 공권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한서평립』(漢書評林)에서는 절반의 공권으로 한자의 사성을 표시하였다.²²⁾

한국에서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두점과 사성 권점이 언제 한국에 나타났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구두를 표시하는 방식은 일찍이 고려 시대 이전부터 붉은 글씨나 먹 글씨로 구결(口訣)을 달기도 하였으며 각필(角筆)로 표시하기도 하였다(이상규 2008:144). 구두점은 세종 16년(1434)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간행된 『삼강행실도』(한문본),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와 그 이후의 서적에 많이 보인다.

한국에서의 사성 권점은 한자와 한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자의 사성 권점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주해천자문』(廣通橋本) 등에서 나타났고, 한글의 사성 권점은 『훈민정음』(1446)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16세기에 오면 점점 사라진다. 사성 공권의 부호는 공권 ‘◦’와 실점 ‘●’ 외에 ‘○’ 부호도 있었다(유탉일 1989:99-101). ‘○’는 중국의 사성 부호와 다른 모양의

經於一字異音 皆加圈識之”.

21) 張群顯, 『四角標四聲齋沿革及稱謂』, 『晉方言研究 第三屆晉方言 國際學術研討會 論文集』, 希望 출판사, 2008, 131쪽. “到了宋代, 書刊有兩方面的發展, 爲‘四角標四聲’的形式帶來了新的要求。首先, ‘四角標四聲’所用的朱砂點乃廣義的‘標點符號’的一部分, 而‘標點符號’在宋代在種類和形式上有了很大的發展, 而各種各樣的‘小點’的使用十分頻繁; ‘四角標四聲’所用的朱砂點, 跟其他功能的小點很容易產生混淆。其次, 宋代雕版印刷大行其道, 人手加朱砂點已不能滿足大量印刷的需要; 於是有了在單色的印刷書頁上也能看清楚“四角標四聲”的客觀要求。這兩方面的發展加起來, 於是以圈代點得做法便應運而生。”

22) 명나라 凌稚隆, 『漢書評林』, 1583. “茲圈於中爲讀 圈於傍爲句 而一字有數呼者 則準聲韻 半圈於四周以別之.”

사성 부호이다. 한글의 사성을 표시하는 데 실점의 부호를 선택하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문에서 실점의 부호로 사성을 표시하는 선례가 있었다. 때문에 한글의 방점은 이런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이라고 본다.

2.2.2. 권점의 제작법과 교정법

송나라 때 구두점과 사성 권점 등을 포함하는 문장 부호에 대한 교정 작업이 강화되었다. 『남송관각록』(南宋館閣錄, 1136년)의 ‘교수식’(校讎式)은 당시 조정에서 책을 정리하는 데 따르는 교감 규범이었다. 이에 따르면 사성 권점은 주홍색으로 표시하고, 잘못된 권점은 자황(雌黃)으로 교정하였다. 또한 나중에 책임을 쉽게 묻기 위하여 책의 권말마다 교정한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는 ‘臣某校正’이라고 적어야 한다.²³⁾ 이때의 교정 내용은 구두점, 사성 권점, 한자의 옳고 그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두와 (한자와 한글의) 사성을 표시하는 권점은 붓으로 나타내기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권점 도구가 생기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은 가는 대나무(竹筒)를 단정하게 자른 후 적색의 먹물에 찍어 사성을 표시하는 것이다(李致忠 2001:44).²⁴⁾ 그러나 대나무나 금속, 흰 각[白角]으로 만든 도구는 재질(材質)상 적색 먹물을 잘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원나라 정단례(程端禮)의 『독서분년일정』(讀書分年日程)²⁵⁾에서는 사몽경(史蒙卿)이 ‘점자’(點子)라는 권점 도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흑각 칫솔[黑角牙刷柄]²⁶⁾의 양단을

23) 송나라. 陳騫(1128-1203). 『南宋館閣錄』, 『欽定四庫全書 史部』, 권3 ‘校讎式’ 조목. “諸點發字 本處註釋有音者 卽以朱抹出 仍點發 其無音而別經傳子史音同有可參照者 亦行點發 或字有分明 雖本處無音 亦便行點發 點有差誤 卽行改正 卽以雌黃蓋朱點 應黃點處 並不為點 點校訖 每冊末各書 臣某校正”.

24) 李致忠, 『古籍版本知識500問』, 北京圖書 출판사, 2001, 44쪽. “書中標識文字聲調讀法的符號。這種符號不是版面鑄刻所固有的, 而是後人讀書時爲了標識聲調而加印上去的。加印方式是以剪齊的細竹筒蘸朱墨鈐蓋上去的。”

25) 원나라 程端禮. 1315. 『讀書分年日程』 권2 ‘所用點子’ 조목. “以果齋史先生法取黑角牙刷柄 一頭作點 一頭作圈至妙 凡金竹木及白角 並剛燥不受朱 不可用也 造法先削成光圓 如所欲點 大小磨平 圈子先以錐子鈐之 而後刮之如所欲”.

26) ‘黑角牙刷柄’은 글자의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활용하여 한쪽은 실점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공권을 만드는 방법이다. 먼저 칫솔을 단단하게 깎은 뒤 원하는 크기대로 갈면 실점 도구가 된다. 이렇게 손질한 실점 도구를 송곳으로 뚫으면 공권 도구가 된다. 실점과 공권의 크기는 모두 원하는 대로 깎고 갈 수 있다(王重民 1987:101, 管錫華 1995:25와 2002:19, 趙惠巖 2005:127, 楊建忠·賈芹 2006:460, 李愛國 2008:134-135, 劉永華 2006:8, 羅玉梅 2009:54).

‘점자’와 같은 전문적인 도구로 찍는 권점은 보다 단정하고 획일적이다. 그리고 붓으로 손수 쓰는 것보다 힘이 덜 들고 정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리대전』과 『영락대전』이 방대한 책이지만 구두점과 사성 권점은 모두 나타난다. 『성리대전』의 권점이 찍히는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영락대전』의 권점은 모두 ‘점자’와 같은 전문적인 권점 도구로 찍힌 것이었다(管錫華 2002:19)²⁷⁾. 『영락대전』에는 ‘권점감생’(圈點監生)이라고 하여 문헌에서 처음으로 전임자로 권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명시화하였다(袁暉 등 2002:175-177)²⁸⁾.

송나라 때 권점의 색깔은 흑색 외에, 적색, 황색, 청색 등이 더 있다. 『독서분년일정』에서는 이어서 ‘단연법’(丹鉛法)을 소개하였다. ‘단’이란 권점을 찍는 데 적색 분말(丹粉) 등 연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일종의 재료이다. ‘연’

‘黑角+牙刷柄’는 흑색 각질의 칫솔 자루와 관련된 것이고, ‘黑+角牙刷柄’은 ‘角牙’(『中國文物大辭典』 2008: 753)의 정의에 따라 명칭 시기 가구를 장식하는 짧은 막대기나 나무오리와 관련된 것이다. 정단례가 말한 ‘黑角牙刷柄’은 뒷문의 ‘白角’과 대비해 보면 ‘黑角+牙刷柄’로 보아야 한다. 趙惠巖(2005: 127), 劉永華(2006: 8)에서는 ‘黑角牙刷柄’을 흑색 소나 양의 뿔로 만든 칫솔 자루로 했다. 李曉軍(2014: 66)에서는 고대 몽골인이 사용한 칫솔이 한쪽은 실점이고 한쪽은 털을 심은 빈 공간이다. 이는 정단례가 말한 ‘黑角牙刷柄’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한다.

27) 管錫華, 『中國古代標點符號發展史』, 巴蜀書社, 2002, 19쪽. “‘史先生’創造了刻模鈐印的方法, 爲標點符號形體的規範做出了貢獻。如上文所言, 明代三德來字的手寫『永樂大典』, 每一個標點符號都是用這種刻模鈐印的方法加上去的, 的實規整。”

28) 袁暉 등 3인 공저, 『漢語標點符號流變史』, 人民 출판사, 2002, 175-177쪽. “在『永樂大典』中我們卻第一次見到了分派專人承擔圈點工作的記錄。如卷之四百八十至“卷之四百八十一忠”的卷末註明“圈點監生臣 叢仲揖”, “卷之四百八十五至卷之四百八十六忠”的卷末註明“圈點監生臣 陳惟傑 臣林松汝”等。一卷或數卷爲某人或某幾人所圈點皆一一註明。”

이란 잘못할 경우 권점이나 글자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연백분이다. 단을 만드는 방법은 당일로 지진 아교를 적색 단분(丹粉)이나 노란 색, 혹은 파란 색 물감과 섞어서 즉시 사용하거나 단단한 완자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에 대비한다(趙惠巖 2005:127, 劉永華 2006:8, 邈玉梅 2009:54). 혹은 당년의 늦벼[晚白米]를 걸게 쪄고 침전물을 걸러서 받쳐 낸다. 밤을 새기 전에 완자를 만들어 당일의 햇볕에 말리면 오래 써도 색깔이 검게 변하지 않는다. ‘단’으로만 글자를 쓰거나 권점을 찍을 경우 수박 즙이나 배 즙과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그리고 소 아교는 오래 지나면 검게 변하게 되므로 생선 아교를 쓰는 것이 좋다(趙惠巖 2005:127).²⁹⁾

권점을 잘못 찍거나 글씨를 잘못 쓰면 ‘연’(鉛)으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붓으로 잘못을 시정한다. 그 다음 연백분³⁰⁾으로 교정한 곳을 덮는다. 붓으로 교정한 것은 나중에 연백분이 사라지더라도 문맥의 의미를 매끄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연백분보다 차라리 종이를 붙이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후버낸 후 종이를 붙이면 안 된다. 나중에 종이 가 떨어지면 글의 의미를 고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서본년일정』은 『주자독서법』(朱子讀書法)을 계승 발전하여 구두점, 사

29) 다음과 같은 『讀書分年日程』의 원문 내용은 趙惠巖(2005: 127)에서 재인용한다. “點書用丹，丹用當日新煎膠調用（或揉成錠子）。（調丹粉及黃青等色，或用新晚白米，濃煎粥飲，濾過，不得過宿。調揉成錠子，當日曬乾磨用，經久色不變黑。如止調丹書字、點字，用西瓜汁或梨汁尤妙。此古書丹法。牛膠久變黑，或雲宜用魚膠。）”

30) 연백분의 제작 방법은 사발[甌]에 7일 동안 담가 둔다. 매일 휘젓고 침전시킨 다음 물 위에 뜬 연기(鉛氣)를 함축한 부유물을 제거한다. 잔여물이 건조된 후 당일 지진 아교와 혼합하여 완자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제작법에 대한 기술은 趙惠巖(2005: 127)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재인용한다.

송나라 정단례(程端禮), 『讀書分年日程』. “正誤用鉛粉，凡有誤處，先以墨筆改正，誤處文義分明，爲底卻以粉筆蓋之，乃填寫粉上（粉久必脫 不如紙貼之爲愈）。所以必須先改正分明者，蓋防經久脫落，欲底還可考也。須以鉛粉水浸七日，日日攪動，待澄，逼去浮水，以去鉛氣，待盪內幹，卻用當日新煎阿膠調揉爲錠子磨用。凡鈔書之法，亦須改正底本分明。然後剪紙貼之，寫淨，切不可鏤去誤處爲孔，補貼。久之脫去無，文不可考矣。切戒貼誤法。”

성 권점 등의 권점을 포함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집대성하여 설명한 책이다. 『독서분년일정』은 원·명·청 시기 7백 년 가까이 학교의 교학 규칙으로 삼았다(이덕무 『양엽기』³¹⁾, 任遠 1991:66, 趙惠巖 2005:127, 劉永華 2006:8).

조선 『태종실록』에서는 주묵(朱墨)으로 문장의 구절에 점을 친다는 기록이 있다.³²⁾ 『세종실록』에서는 주묵(朱墨)으로 글자를 쓰거나 적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³³⁾ 고려와 조선은 송·원·명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평소에 많이 쓰인 권점의 제작법과 교정법에 대하여 낫설지 않았을 것이다.

2.3.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 제작법에 대한 추정

『훈민정음』 해례본(보사 부분 제외)에 나타난 구두점과 사성 권점은 단정하고 정연한 체계를 이루었다. 공권 ‘◦’와 실점 ‘●’ 등의 권점 부호는 대체로 판각 상태에 따라 모습이 다소 유동적이며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권점 형태를 보면 너무나 깔끔해서 붓으로 나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구두점과 한자의 사성 권점, 한글의 사성 방점 등의 부호가 너무 작아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한글의 사성을 나타내는 실점 ‘●’ 부호의 형태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발행 맥락이 달라서 단순한 비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서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통해 권점을

31) 조선 이덕무(1741-1793). 『청정관전서』, 한국고전종합DB, 권55 ‘양엽기2 羣經字數’ 조목. “陸隴其曰 讀書分年日程三卷 元程畏齋先生 依朱氏讀書法修之以示學者 朱子言其綱而程氏詳其目 誠由其法而用力焉 內聖外王之學 在其中矣 當時頒行學校 明初諸儒 讀書奉為準繩 故一時人才 雖未及漢宋 經明行修 彬彬盛焉.”

32) 『태종실록』의 내용은 간행된 문헌으로 하지 않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http://sillok.history.go.kr>’을 이용하였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출처와 검색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태종실록』, 한국고전종합DB, 1412년 8월 15일 조목. “今後祝文 勿令細書 以朱點句.”

33) ㄱ. 『세종실록』, 1421년 6월 10일 조목, “請於底蓋前面 朱書前字.”

ㄴ. 『세종실록』, 1449년 6월5일 조목. “疏內有言行城眞法處 皆朱抹 使不擬議.”

나타내는 도구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두점, (한자와 한글의) 사성 권점 등의 문장 부호는 중국과 같이 전문적인 ‘점자’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점자’ 도구로는 공권과 실점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공권과 실점의 크기 또한 원하는 대로 조정가능하다. 심지어 훈민정음 초성자의 자형을 구성하는 공권 ‘○’과 중성자의 자형을 구성하는 실점 ‘●’까지 권점 도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금 전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목판본이지만 판본을 제작하는 바탕이 있기 마련이다. 해례본의 목판본은 권점 도구로 구두점과 (한자와 한글의) 사성 권점을 찍은 다음, 이들의 권점까지 판각한 것으로 본다. 간송미술관 소장본 『훈민정음』과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이 동일 판본의 원간본이다(이상규 2012:46).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에서도 구두점과 사성 권점을 나타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권점까지 판각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원 시기에는 책을 펴내는 데 권점과 주석을 포함하여 판각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王重民 1987:99, 管錫華 1987:62)³⁴. 권점까지 판각하여 책을 펴낸 것은 이런 시대 흐름에 잘 부합한다. 해례본에서의 권점 형태 차이는 대체로 권점 도구의 선택, 찍는 먹물의 농도, 판각 상태에 달려 있다. 정인지를 위시한 학자들이 직접 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문장과 부호를 잘

34) ㄱ. 王重民, 『套版印刷發起源於徽州說』, 『安徽省出版社資料選輯 第一輯』, 安徽省出版社出版誌編輯室 編, 1987, 99쪽. “這可回溯到第十二世紀南宋渡江以後。當時有一些古文家爲了幫助青年學子學習古文, 開始使用一些標抹和批語, 用以指示讀者誦習。這一方式和方法得到了一般讀書人的歡迎以後, 刻書的人也就爭取出版有標抹和批語的書。這一批點書籍的風氣, 在第十三、十四世紀是流傳得非常廣泛的。…到了真德秀(1178-1235)的 『文章正宗』和謝枋得(1226-1289)的 『文章規範』, 於‘標抹’以外使用‘圈點’, 更擴大與發展了這一方法。影響所及, 古文家採用這一方法來論文, 出版家採用這一方法來刻書, 天下學宮裏的教師和學生也都採用這一方法來教學, 並且除古文以外, 對於經書史書, 也都一律採用了同樣的教學方法。”

ㄴ.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發展史論綱』, 『古漢語研究』1997년 제02집, 1997, 62쪽. “宋代以後情況大變, 許多寫刻本都普遍性地使用了標點符號。宋代的如建安余仁仲刻的 『春秋公羊解詁』、『春秋谷梁傳』, 元代的如坊間所刻的部分書籍, 明代的如三億多字的 『永樂大典』等等。標點符號的使用也很規範, 大小一致, 位置固定, 占格合適。『大典』雖是寫本, 但標點符號則是鈐印上去的。”

구별하기 위해 『영락대전』처럼 적색을 권점으로 하여 구두와 사성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사성 권점의 판별 근거와 표시 방식

3.1.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의미의 판별 근거

『훈민정음』 해례본을 교감하는 데 사성 권점의 교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한다(안병희 1986:152). 『훈민정음』 해례본(낙장 보사 부분 제외)에서는 사성 권점을 표시하는 동형이의 한자(획수와 상관없는 異字)가 모두 30개로 확인된다(김슬옹 2015:57-58).³⁵⁾ 한자의 본음이나 본뜻 이외의 경우만 사성 권점을 표시하였다(정연찬 1970:290, 안병희 1986:152-153, 김민수 2003:152, 이상규 2008:144-145).

문장을 해독하는 데 구점과 두점을 구별하여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 본뜻과 기타 뜻을 판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성 권점의 위치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한자의 본음과 차음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萬獻初 2012:257).³⁶⁾ 『훈민정음』의 낙장 보사 부분을 교감하려면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야 본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성 권점을 찍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정초(鄭樵)가 말하기를 육서법이 어려운 것은 가차법(假借法)이 어렵기

35) 『훈민정음』 해례본(낙장 보사 부분 제외)의 동형이의 한자에 대해서는 정연찬(1970: 280), 최세화(1976, 1997), 이상규(2008: 160-167, 2009: 12, 2012: 24), 김슬옹(2015, 57-58) 등에서 밝힌 바 있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본고는 해례본의 동형이의 한자의 획수와 개수에 대해서는 김슬옹(2015: 57-58)을 따른다.

36) 萬獻初, 『漢語音義學論稿』,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2012, 257쪽. “又宋人王謙雲: ‘書之難, 不唯句度義理, 兼在知字之正音、借音。若某字以朱發平聲即爲某字, 發上聲變爲某字, 去聲又改爲某字。轉平上去入易耳, 知合發不發爲難。’”

때문이다.³⁷⁾ 동형이의 글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데 있어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판별하는 근거도 있었다. 『독서분년일정』에서는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 본뜻과 기타 뜻을 판별하는 데 참고한 책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데에는 한나라 허신의 『설문해자』와 송나라 정초의 『육서략』을 중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차음을 가진 한자는 먼저 『설문해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육서략』에 따라 본음과 차음을 판별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문해자』에 의해 판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한자의 본음을 확정하면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사성 권점을 찍는 여부가 판별된다.³⁸⁾

그러나 『육서략』과 『설문해자』에서는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이나 차음만 제시하고,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육서략』만으로 동형이의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독서분년일정』에서는 한자의 의미(의미와 대응하는 발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나라 육법언(陸法言)의 『경전석문』(經典釋文), 송나라 가창조(賈昌朝)의 『군경음변』(群經音辨) 등 책을 중요시하였으며, 대체로 주희(朱熹)의 것을 따랐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서분년일정』에서는 한자의 모든 발음과 의미, 자형(偏旁點劃)을 골고루 고찰하려면 『설문해자』, 『자림』(字林), 『육서략』, 『절운지장도』, 『정시음』(正始音), 『운회』 등을 중요시하였다(邏玉梅 2009:45).³⁹⁾ 『독서분년일정』은 청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가치를 지녔었다(寇淑慧 2006:43).⁴⁰⁾

37) 송나라 정초(鄭樵, 1104-1162), 王樹民 점교, 『통지이십략』(通志二十略), 中華書局, 1995, 319쪽. “六書之難明者, 爲假借之難明也。”

38) 원나라 程端禮, 『讀書分年日程』, 『欽定四庫全書 子部』, 권2 ‘發音例’ 조목, 1315. “並考許叔重說文及鄭夾際六書略 每字有兩音者 先依夾際所正叔重之誤者 余方依叔重先正始音 然後依本文音義 隨四聲圈發 其音義參陸氏經典釋文 賈氏群經音辨 大抵依朱子爲主.”

39) 邏玉梅, 『程端禮及其『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研究』, 西北師範 대학교 석사 논문, 2009, 45쪽 원문 재인용.

원나라 程端禮. 1315. 『讀書分年日程』 권1, “欲考字, 看『說文』、『字林』、『六書略』、『切韻指掌圖』、『正始音』、『韻會』等書, 以求音義偏旁點畫六書之正.”

40) 寇淑慧, 『錢泰吉和他的『曝書雜技』』, 『貴州文史叢刊』 2006년 제04집, 43쪽.

해례본 편찬자가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참고한 책이 있었다면 『육서략』과 『고금운회거요』일 가능성이 크다. 『육서략』 ‘假借第六’에서는 한자의 본음 이외의 차음을 제시하였다. ‘가차’는 육서법의 하나로서 이미 있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다른 글자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고금운회거요』에서는 한자의 본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자의 모든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발음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훈민정음 동형이의 30자의 성조와 대비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 낙장 보사 부분 제외)의 동형이의 한자⁴¹⁾

『훈민정음』 해례본			『육서략』 ‘假借第六’		『고금운회 거요』	
성조	횃수 상관 없는 異字	차 례	구 분 (가차 의 유형)	『육서략』의 내용	쪽 수	성조(쪽수)
幾	2	協音 借義	幾之為幾, (音冀. 『春秋傳』: “庸可幾乎.”) 為幾. (渠希 切. 近也.)	3 2 2 쪽	평성(57), 상성 (214,229) , 거성 (319).	
夫	3	語辭 之借	夫, (音扶.) 本丈夫也.	3 3 0 쪽	평성 (31,76).	
縱	4	借協 音不 借義	縱之為縱. (平聲.)	3 2 7 쪽	평성(31), 상성 (212), 거 성(305).	
治	5	因借 而借	治, (平聲.) 水也, 因音借為治理 之治; 因治理之義借為平治之	3 3	평성(41), 거성	

“例如他認為‘讀經當先正音’,有誌讀經者當用 『程氏分年日程』所載‘館閣校刊法’及‘勉齋批點四書例’乃為盡善其發音例雲：并考許叔重 『說文』及鄭夾際 『六書略』。”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圈點) 체계에 대하여

			治。(去聲。)	0 쪽	(310).
거성	復	6	協音借義 復之為復。(扶又切。)	3 3 3 4쪽	거성(405), 성입성(413, 414).
	冠	7	協音借義 冠之為冠。(去聲)	3 2 3 쪽	평성(113), 거성(363).
	斷	8	協音借義 斷(都管切。)之為斷。(徒管切。)	3 2 4 쪽	평성(95), 상성(258), 거성(363).
	離	9	協音借義 離之為離。(去聲。)	3 2 4 쪽	평성(44).
	論	10	協音借義 論之為論。(平聲)	3 2 4 쪽	평성(95,107), 거성(360).
	相	11	協音借義 相之為相。(息亮切。)	3 2 4 쪽	평성(163), 거성(392).
	要	12	借協音不借義 要之為要。(去聲。)	3 2 7 쪽	평성(130), 거성(376).
	易	13	借同不借義 易, 蟲屬也, 而為變易之易。	3 2 1 쪽	평성(161), 거성(311), 성입성(476).
	見	14	協音借義 見之為見。(胡甸切。)	32 쪽	거성(369, 374).
	和	15	協音借義 和之為和。(去聲。)	3 2 4 쪽	평성(148), 거성(384).
先	16	協音借義 先之為先。(去聲。)	3 2 3 쪽	평성(120), 상성(261), 거성(369).	
趣	1	協音	趣之為趣。(平聲, 為趣。七口	3	상성

	7	借義	切, 『周官』: “有趣焉。”	2 2 쪽	(294), 거 성(324).	
讀	1 8	-	-		거 성 (404), 입 성 (412).	
調	1 9	借 協 音 不 借 義	調之為調, (徒沓切。品調。) 為調。(陟留切。『詩』: “怒如調饑。”)	3 2 6 쪽	평 성 (132,190) , 거성 (376).	
應	2 0	協 音 借 義	應 (平聲)。之為應。(應對之應。)	3 2 4 쪽	평 성 (186), 거 성(398).	
상성	上	協 音 借 義	上之為上。(時掌切。)	3 2 2 쪽	상 성 (282), 거 성(391).	
	長	協 音 借 義	長之為長。(去聲)		평 성 (160), 상성 (281), 거성 (390).	
	徵	五 音 之 借	徵, 本徵召之徵。	3 3 1 쪽	평 성 (185), 상 성(218).	
	處	協 音 借 義	處之為處。(去聲。)	3 2 4 쪽	상 성 (232), 거 성(322).	
	強	2 5			거 성 (391).	
	稽	2 6	借 協 音 不 借 義	稽之為稽。(音啟。稽首。)	3 2 6 쪽	평성(81).
	입성	索	借 協 音 不 借 義	索之為索。(生革切。)	3 2 6 쪽	입 성 (465,471) ·
別		協 音 借 義	別 (彼列切。) 之為別。(皮列切。)	3 2 4 쪽	입 성 (449,454) ·	
塞		協 音 借 義	塞之為塞。(去聲, 塞垣。)	3 2	거 성 (349), 입	

					3 쪽	성(486).
	着	3 0	-	-	-	-

<표1>에서는 훈민정음의 동형이의 30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육서략』 ‘假借第六’과 같은 사성을 가진 유형이다. ‘縱’, ‘治’, ‘冠’, ‘離’, ‘要’, ‘和’, ‘先’ 등 7자가 이 유형에 속한다. 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治獄’의 ‘治’자에 평성의 권점을 찍었다. 그러면 평성은 ‘治’자의 차음이다. 『육서략』의 ‘因借而借’ 조목에서는 ‘治’자의 본음이 평성이고, 본뜻은 물이라고 하였다. ‘治理’의 ‘治’자는 음에 의하여 가차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治理’의 ‘治’자는 본음과 같은 평성일 것이다. 음은 같지만 ‘因借而借’이라는 가차 유형에 속해 있어서 ‘治理’(다스리다, 관리하다)의 ‘治’자는 평성의 권점을 표시해야 한다.

‘縱’, ‘冠’, ‘離’, ‘要’, ‘和’, ‘先’ 등 6자의 차음을 판별 방식은 ‘治’자와 다소 다르다. 『육서략』에서는 이들의 차음만 제시하고, 본음이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고금운회거요』 등 자전[字書]을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육서략』의 ‘借協音不借義’ 조목에서는 ‘縱’자의 차음에 대하여 “縱之爲縱。(平聲。)”이라고만 하였다. 지극히 간략한 설명이다. 『고금운회거요』에서는 ‘縱’자가 평성, 상성, 거성 등 세 가지의 음을 가졌다. 평성의 ‘縱’자는 중횡의 대립[縱橫之對](황공소 1297/1975: 31)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縱橫’의 ‘縱’자는 평성이고, 차음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縱’자가 가로[橫]와 대립하는 세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평성의 권점을 찍었다. ‘冠’, ‘離’, ‘要’, ‘和’, ‘先’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방식은 ‘縱’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둘째, ‘幾’, ‘夫’, ‘復’, ‘相’, ‘易’, ‘見’, ‘應’, ‘上’, ‘徵’, ‘稽’ 등 10자의 차음은 『육서략』 ‘假借第六’에서 직접 제시하지 않고, 직음법(直音法)이나 반절로 표시되었다. 이들은 『고금운회거요』를 함께 고찰한 결과, 『육서략』과 일

41) <표1>의 동형이의 한자는 김승용(2015: 57-58)의 <표5>의 사성 글자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통지이십략』(1995, 王樹民 點校, 中華書局)과 『고금운회거요』(1297/1975, 영인본)를 참고한다. ‘()’은 원문에서 해석하는 작은 글씨를 잘 보이기 위해 본고에서 첨가한 부호다.

치한다는 것이 추가로 확인된다.⁴²⁾ 직음법이나 반절로 된 이들의 성조는 직음(直音)의 글자나 반절 하자의 음에 달려 있다. 예컨대 『육서략』의 ‘語辭之借’ 조목에서는 “夫，(音扶。)本丈夫也。”，‘協音借義’의 조목에서는 “見之爲見。(胡甸切。)”라고 하였다. 이는 ‘夫’의 차음은 ‘扶’자의 음과 같고, ‘見’의 차음은 반절 하자인 ‘甸’의 음과 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扶’와 ‘甸’의 음을 먼저 찾아본 다음, ‘夫’와 ‘見’자의 음과 의미를 문맥과 함께 고찰하여 사성 권점을 찍는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夫’자의 차음이다. ‘夫’자는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평성이다. ‘扶’자도 ‘夫’자와 같은 평성이다. 『육서략』에 의하면 ‘夫’자의 본뜻을 장부(丈夫)이고, ‘夫’의 가차 유형은 ‘어사지차’(語辭之借)이다. 말 그대로 ‘夫’자가 발어사로 쓰일 경우 가차자로서 평성의 차음을 가진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夫’자가 발어사로 쓰인 경우, 모두 평성의 권점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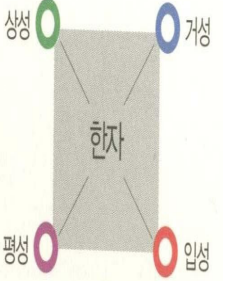



셋째, ‘探’, ‘讀’, ‘著’ 3자의 차음은 『육서략』에 나타나지 않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斷’, ‘論’, ‘趣’, ‘調’, ‘長’, ‘處’, ‘索’, ‘別’, ‘塞’ 등 9자의 성조는 『육서략』의 차음과 다르다. 송나라 때 ‘强’자와 ‘疆’자가 통용해서인지 ‘疆’자의 차음만 나타났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한자의 자음과 자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이와 같은 13개 동형이의한자의 성조가 무엇을 근거로 판별되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타나는 동형이의 30자의 본음과 차음을 문맥의 의미와 함께 일일이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을 통해 훈민정음의 30자 가운데 『육서략』과 일치한 글자는 17개가 확인된다. 『육서략』에서 음을 가차하는 유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사성 권점을 찍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육서략』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참고한 책이었고(강신항 1987/2007:121), 『고금운회거요』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듬해(1444)에 세종이 음을 붙이려고 한 책이었다. 한자의 의미를 알아보는 데 『옥편』 등과 같은 자전도 있지만 『고금운회거요』를 참고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

42) 이는 동형이의 한자의 자음과 자의, 구체적인 문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판별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예만 제시하기로 한다.

3.2. 『사림광기』와 일치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성 권점의 특징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낙장 보사 부분 제외)에서는 공권 ‘ㅇ’ 부호를 동형이의 한자의 네 귀퉁이에 바짝 붙어서 찍었다. 이와 같은 구두점과 사성 권점을 표시한 것은 『성리대전』의 체재와 일치한다(이현희 1997:238, 이상규 2012:22). 공권 ‘ㅇ’ 부호는 동형이의 한자와 살짝 겹쳐 찍거나 겹쳐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권점의 일부분이 한자와 겹쳐 찍는 소위 ‘반권’(半圈)⁴³⁾이라는 사성 표시 방법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사성 권점을 표시하는 방식을 반권의 표시 방법과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훈민정음』과 『영락대전』의 사성권점 비교	
<p>『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성 표시 방법(김슬옹 2015:56)⁴⁴⁾</p>	<p>『훈민정음』: </p> <p></p>
	<p>『성리대전』: </p> <p></p>
	<p>『영락대전』: </p> <p></p>

43) 서재극(1994: 39 주석1)에서는 이를 온달(圓)과 반달(半圓)모양의 해당운 표시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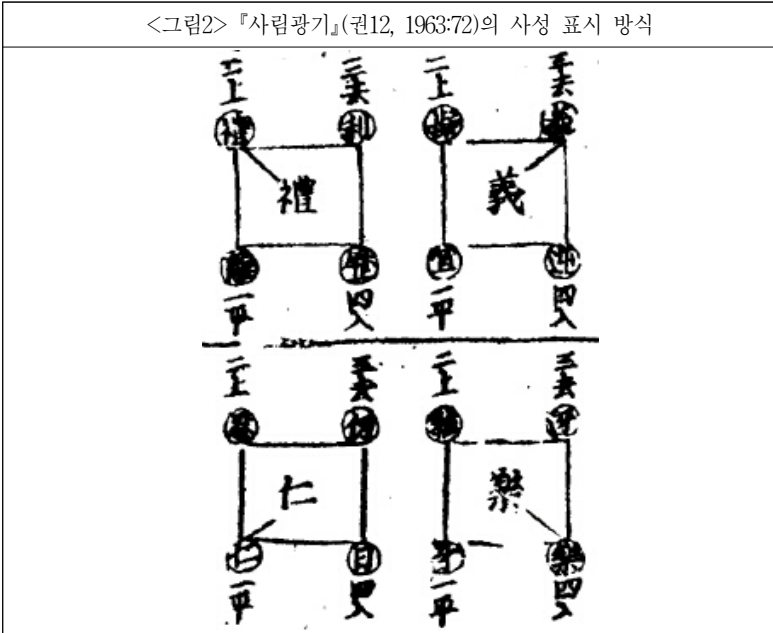
『성리대전』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표시 방식으로 사성 권점을 나타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원나라 진원정(陳元靚)의 『사림광기』(事林廣記)에서는 사성의 특성을 비롯하여 사성 권점을 찍는 위치와 방식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평·상·거·입 사성을 ‘平仄’으로 나누어 ‘平聲者哀而妄 上聲者厲而舉 去聲者清而遠 入聲者直而促’라고 하여 성조의 특성을 설명하였다.⁴⁵⁾ 실제로 『세종실록』에서 ‘사림광기’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십여 차례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성리대전』(1415년)의 사성 권점 체제는 이와 일치해서 더욱 믿음이 갔을 것이다.

44) 이는 정연찬(1970: 281)에서 제시하는 사성의 표시 방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정연찬(1970: 281)의 사성 표시 방법은 반권의 사성 표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5) 원나라 진원정(陳元靚). 『사림광기 四』(事林廣記), 中華書局, 元至順年間建安椿莊書院 영인본, 1963, 권9, 72쪽. “每一字有四聲 只有一平是平聲 二上三去四入 皆是側聲也 字有四聲 平聲者哀而妄 上聲者厲而舉 去聲者清而遠 入聲者直而促”.

46). 『사림광기』는 『세종실록』의 1423년 4월 23일, 1424년 1월 19일, 1425년 10월 16일, 1427년 1월 9일, 1430년 12월 8일, 1431년 4월 1일, 1432년 6월 5일, 1433년 3월 22일, 1435년 2월 27일, 1440년 1월 8일 등의 조목에서 나타난다.

<그림2> 『사림광기』(권12, 1963:72)의 사성 표시 방식



이와 같은 사성 권점을 표시하는 방식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사성 권점 여부를 판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정음해례5나’에서는 ‘待’자의 왼쪽 위에 공권 ‘ㅇ’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최세화(1976, 1997), 김영배(2000: 162), 안병희(1997: 195-196, 2007: 33) 등에서는 지배 글씨가 비친 것이라고 간주하여 사성 권점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상규(2008: 161, 2012: 24) 등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待’자의 상성 권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待’의 권점이 한자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기타 동형이의 글자의 표시 방식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待’자의 권점은 사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권점을 대상으로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와 제작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 사성 권점이 생기는 원인과 찍히는 원칙은 물론,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데 중시한 문헌, 사성 권점의 표시 방식과 『사림광기』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구두점과 사성 권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동시에 살펴 보았다. 당나라 때 사성 권점의 부호는 실점이었다. 송나라에 들어선 후 공권으로 사성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구두점과 사성 권점 등의 부호는 붓으로 나타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권점 도구가 생기게 되어 이 난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 원나라 때 권점 도구로는 실점과 공권을 모두 편하게 찍을 수 있었다. 송원 시기에는 권점과 주석까지 포함하여 판각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권점이 너무나 깔끔해서 권점 도구로 찍은 다음, 권점까지 판각한 것으로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차음을 판별하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본음과 본뜻이 아닌 경우 한자의 네 귀퉁이에 사성을 표시하였는데, 훈민정음의 동형이의 30자 가운데 『육서략』의 차음 성조와 일치한 글자는 17개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편찬되었을 때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과 의미를 판별하기 위해 『육서략』과 『고금운회거요』를 참고했을 것이다.

『훈민정음』에서의 사성 권점이 표시되는 방식은 『사림광기』 ‘字有四聲’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사림광기』 ‘字有四聲’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일치하는 사성 권점의 표시 방식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사림광기』는 조선 초기 문헌에서 많이 나타났고, 세종 때에도 여러 번 활용되었던 책이다. 집현전 학자는 『사림광기』에서 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성리대전』의 사성 권점 체제도 『사림광기』와 일치해서 더욱 믿음이 갔을 것이다.

그러나 동형이의 한자의 차음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례본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圈點) 체계에 대하여

서의 13자의 성조가 『육서략』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을 근거로 본음과 차음을 판별했는지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80.
-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해제, 교보문고, 2015.
- 김영국, 『『訓民正音』 解例本の 四聲體系와 傍點』, 『동악어문논집』 제32집, 동악어문학회, 1997, 87-110쪽.
- 김영배, 『연구 자료의 영인 - 훈민정음의 경우』, 『새국어생활』 제1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2000, 161-169쪽.
- 박지홍,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제164호, 한글학회, 1979, 629-654쪽.
-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과 『합본훈민정음』 연구」, 『조선학보』 제214집, 조선학회, 2010, 7-35쪽.
- 서재극, 『『훈민정음』의 한자 사성 권표』, 외골 권재선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우리말의 연구』, 우골담, 1994, 39-49쪽.
- 안병희, 『訓民正音解例本과 그 複製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84호, 진단학회, 1997, 191-202쪽.
- 안병희, 『訓民正音解例本の 復原에 대하여』, 『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 국어학 신연구Ⅲ』, 탐 출판사, 1986, 149-158쪽.
- 유탉일, 『古文獻의 文章符號와 尊待 謙讓方式』, 『한국문헌학연구 - 국문학 연구의 기초』, 아시아문화사, 1989, 97-113쪽.
- 이상규, 『『훈민정음』 영인 이본의 권점(圈點) 분석』, 『어문학』 제100집, 한국어문학회, 2008, 143-172쪽.
- 이상규, 『『훈민정음』의 첩운(疊韻) 권점 분석』, 『새국어생활』 제19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2009, 155-184쪽.
- 이상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한글』 제298호, 한글학회, 2012, 5-50쪽.
- 남광우, 『傍點攷』, 『국어국문학』 제7권, 국어국문학회, 1953, 106-109쪽.
- 정연찬, 『세종대의 한자 사성 표기법』, 『국어국문학』 제49·50권(合本), 국어국문학회, 1970, 277-291쪽.
- 최세화, 『『訓民正音』 落張의 復原에 대하여 - 그 修正 補完을 위하여』, 『국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圈點) 체계에 대하여

- 어학』 제29집, 국어학회, 1997, 1-32쪽.
- 최세화, 『15세기 국어의 중모음연구』, 아시아문화사, 1976, 80-85쪽.
-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理論初探』, 『古籍整理研究學刊』 1995년 제5집, 1995, 22-28쪽.
- 管錫華, 『古代標點符號發展史論綱』, 『古漢語研究』 1997년 제2집, 1997, 58-63쪽.
- 管錫華, 『中國古代標點符號發展史』, 巴蜀書社, 2002.
- 寇淑慧, 『錢泰吉和他的『曝書雜技』』, 『貴州文史叢刊』 2006년 제4집, 2006, 41-44쪽.
- 李愛國, 『“圈發”源流考』, 『湖北社會科學』 2008년 제9집, 2008, 133-135쪽.
- 劉永華, 『中國古籍的句讀標識法』, 『邢臺職業技術學院學報』 제23권 제2집, 2006, 8-9쪽.
- 呂友仁, 『學識何如觀點書辨』, 『中國語文』 제4집, 1989, 312-314쪽.
- 李致忠, 『古籍版本知識500問』, 北京圖書出版社, 2001.
- 羅玉梅, 『程端禮及其『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研究』, 西北師範 대학교 석사 논문, 2009.
- 任遠, 『宋元句讀例述評』, 『浙江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1년 제3집, 1991, 66-68쪽.
- 萬獻初, 『漢語音義學論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王重民, 『套版印刷發起源於徽州說』, 『安徽省出版社資料選輯 第一輯』, 安徽省出版總社出版誌編輯室 편, 1987, 96-113쪽.
-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復旦大學 출판사, 2003.
- 楊建忠·賈芹, 『談古書中的“點發”』, 『古漢語研究』 2006년 제3집, 2006, 458-460쪽.
- 楊亦鳴, 『文言文學習辭典』, 黃山書社, 1998.
- 袁暉·管錫華·嶽方遂, 『漢語標點符號流變史』, 人民出版社, 2002.
- 張群顯, 『四角標四聲齶沿革及稱謂』, 『晉方言研究 第三屆晉方言 國際學術研討會 論文集』, 希望 출판사, 2008, 129-140쪽.
- 周采泉, 『漫談“異讀”』, 『文史博議』, 廣東人民 출판사, 1986, 70-79쪽.
- 趙惠巖, 『古籍的句讀標識系統』, 『遼寧經濟職業技術學院學報』 2005년 제4

집, 遼寧經濟職業技術學院, 2005, 127-128쪽.

조선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조선 한치윤(韓致彞, 1765-1814), 『해동역사』(海東釋史), 한국고전종합DB.

조선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한국고전종합DB

당나라 이광문(李匡文, 806-?), 『자가집』(資暇集), 『唐宋史料筆記叢刊 蘇氏演義(外三種)』, 蘇鶯 편, 吳啓明 집교, 2012, 中華書局.

당나라 장수절(張守節), 『사기정의』(史記正義), 『欽定四庫全書 史部』.

송나라 진규(陳騏, 1128-1203), 『남송관각록』(南宋館閣錄), 『欽定四庫全書 史部』.

송나라 악가(嶽珂, 1183-1243), 『구경삼전연혁례』(九經三傳沿革例).

송나라 황공소(黃公紹),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 『한국학고사전씨리즈 13』, 아세아문화사, 1297/1975.

송나라 정초(鄭樵, 1104-1162), 王樹民 집교, 『통지이십략』(通誌二十略), 中華書局, 1161/1995.

송나라 진원정(陳元靚, 南宋末-元初), 『사림광기』(事林廣記), 中華書局, 元至順年間建安椿莊書院 영인본, 1963.

원나라 정단례(程端禮, 1271-1345), 『독서분년일정』(讀書分年日程), 『欽定四庫全書 子部』.

원나라 유감(劉鑑),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 明正德八年序王朝 영인본, 1336.

명나라 凌稚隆, 『漢書評林』, 1583.

Abstract

A study on small circles of punctuation mark(句讀點) and Chinese four tones' mark(圈發) in Hunminjeongeum

Nie, Bao-mei(Wonkwang Univ.)

The small circles in Hunminjeongeum were used as punctuation mark (句讀點) and the four tones mark of Chinese voice. But the same circles were not used in the Korean Version of Hunminjeongeum (訓民正音 諺解本). It is helpful for us to understand Hunminjeongeum Haerye, if we know the history of punctuation mark(句讀點) and the four tones mark in Chinese history. In China the small circles, such as ‘◦’ and ‘●’ in publications were added by the tool named divination(點書). That is why the small circles in Hunminjeongeum Haerye are so uniformly and perfectly recorded at the form and the size. We have a daring opinion that the character of Joongseong(中聲) and the side dots of Hanguel were imprinted by the tool of divination too.

In Hunminjeongeum, the Chinese character used as boneum(本音) or original intention were unmarked. It coincides with the expression of Chinese polyphone.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Chinese polyphone, especially the boneum(本音). According to 『Reading schedule』(讀書分年日程), we can infer that 『Yuksseoryak』(六書略) and Gogemunhoegeoyo(古今韻會舉要) should be used for distinguishing the tones of Chinese voice. I hope the study of circles' marks in Hunminjeongeum can be useful for restoration of Hunminjeongeum's missing pages.

■ Key words: punctuation mark(句讀點), Chinese four tones mark, tool of divination(點書), boneum(本音) of Chinese polyphone.

■ 주제어: 구두점, 사성 권점, 점자 도구, 동형이의 한자의 본음.

접수일자: 2016. 3. 27 심사일자: 2016. 4. 25 게재결정: 2016. 4. 28

